



5-2. 역사학의 전문화, 과학화

- ▶ ■ 역사 자체가 성찰과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역사철학과 전문적인 역사학 탄생
- ▶ ■ 전문적 학문으로서의 근대 역사학 (현재주의적 관점)
 - 현재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사료 비판을 통해 과거를 복원하고, 다시 이를 현재에 피드백 하는 학문분과
 -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의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
- 과학적 역사학에 대한 믿음
 - 과학적 방법으로 과거의 진실을 탐구 → 과거 복원





5-3. 진보과정으로서의 역사(1)

- ▶ 역사란 **일회적인 진보의 과정**, 즉 끊임없이 변화하며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함
고려할 이상세계
→ X - '역사의 반복성' 부정
- 역사는 도덕개념에서 (과정 process 개념, 운동 개념)으로 변모
도덕적 고려를 얹는 주관
고려 역사 발전의 동력
- 역사의 '경향성', 더 나아가 역사의 법칙과 '필연'을 성찰 대상으로 삼음
- 역사적 상대주의
- 역사가 진보함에 따라 시대적 관점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역사 인식 또한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는 생각
⇒ 매번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, 과연 과거의 진실은 무엇인가?





5-3. 진보과정으로서의 역사(2)

- ▶ ■ 단선적인 역사발전론 원시 고대 중세 근대 등
시대를 나누는 기준
 - 고유한 시간의 리듬을 지닌 개별적인 역사들이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'진보'의 체계 속에 배치, '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' 관념이 나타남
 - 이는 선진과 후진이라는 서구 중심적 관념으로 발전





5-4.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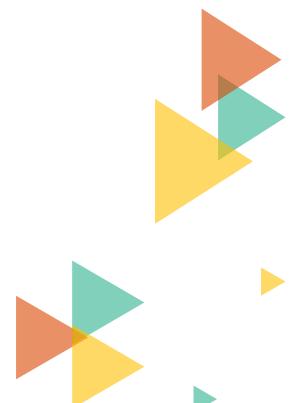
▶ ■ 역사의 생산 가능성에 대한 논의

- 진보과정으로서의 역사관은 '미래를 위해 역사를 진보시켜야 한다'는 관념을 낳음
- 프랑스대혁명 이후 본격화

■ 진보세력의 역사 만들기 계획

- “**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든다.** 하지만 자기 스스로 골라낸 조각들을 가지고 **마음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어진, 혁존하는 전래된 상황들에 입각해 역사를 만든다**”(마르크스)
-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유토피아적 미래를 만들려는 계획, 이를 위한 정치적 실행을 일치시키고자 함

■ ~~자기 정당화를 위한 역사 만들기 구호~~





6. 근대 역사학에 대한 비판 – 새로운 역사의 모색

▶ ■ 허구적 거대 서사

- 사건의 내적 연관, 보편적 의미를 드러내는 역사서술을 추구한 결과 기승전결의 플롯에 기반한 통일적 서사구조 갖춤
- 역사적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매번 '새로운 역사' 서술
➔ 과학을 지향하지만 허구적 거대서사로 전락했다는 비판 초래

■ 과학으로 포장된 역사서술의 권력화

■ 단선적 역사 발전론, 서구 중심주의 역사관

- 다양한 문명을 '선진'과 '후진'으로만 관찰

■ 다양한 역사 이야기의 상실





역사 속의 선택, 개항

-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와 균대화



▶ 테마수업(2)





1. '근대사 기점'으로서의 개항

● 개항의 의미

-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위한 항구 개방, 제국주의 나라에 대한 문호 개방
- 동아시아 3국 모두 강제 개항을 당한 후 근대화를 위한 급격하고 단절적인 변화 겪음

● 동아시아 3국의 개항

- 중국 : 난징조약(1842), 영프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(1858) → 중화주의 붕괴
- 일본 : 미일화친조약(1854), 1860년대 초 열강과의 시모노세키전쟁 등에서 거듭 패배 → 전면적 근대화 세력이 정권 장악, 메이지유신 추진 (1868)
- 조선 : 조일수호조규(1876)

● 흥선대원군 집권 후 대책 마련 고심

- 국방 강화
- 외세 침투 방어 : 병인양요(1866), 신미양요(1871) 등

//2019.04.11//